춘천에 초기불교 수행도량 개원한다

제따와나 선원, 춘천 이전… 10월 14일 개원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강원도 춘천 남면 박암리. 꼬불꼬불한 1차선 시골길을 따라가니 주홍빛 벽돌로 올라간 건물이 보인다. 이색적이지만 왠지 낯이 익다. 무언가 기시감이 든다.

그렇다. 인도의 기원정사(제따와나) 유적지. 아나타삔디까(수달타) 장자가 제따(기타) 왕자 소유의 숲에 지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보시한 선원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은 안거를 보내며 수많은 가르침을 펼쳤던 곳.

주홍빛 벽돌의 인도 기원정사 유적지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은 바로 서울 강남 방배동에서 초기불교 수행으로 이름을 알렸던 제따와나 선원(선원장 일묵)이 새롭게 문을 여는 도량이다.

2009년 서울에 문을 연 제따와나 선원은 9년 만에 강원도 춘천 남면에 새로운 수행처를 마련해 '춘천 시대'를 개막한다.

춘천 남면 박암리에 자리한 제따와나 선원은 3500평 대지 위에 법당 · 선원, 요사채, 숙소, 종무실 등 7동의 건물로 구성됐다. 초기불교 수행도량인 만큼 전통적인 한국 사찰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성했다. 나무로 조성된 한옥이 아니라 콘크리트 외관에 기원정사 유적지 벽돌과 유사한 파키스탄 벽돌 30만장으로 외관을 장엄했다.

그래도 도량의 배치는 전통사찰 형식과 유사하다. 3개의 단(壇)으로 나뉜 도량은 첫째 단에는 종무소와 재가 숙소가, 두 번째 단에는 스님들의 요사채가, 세 번째 단에는 법당과 선원이 배치됐다. 이는 임형석 건축가가 설계한 것으로 "단을 오를수록 속세와 멀어지고 부처님께 가까워지는 점층적 구조"라는 게 제따와나 선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 번째 단에 있는 법당 내부도 파격에 가깝다. 새하얀 공간에 오로지 부처님 한 분만이 석조 좌대 앉아 계신다. 후불탱화도 없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상주하는 공간이다. 부처님상은 샤르나트 박물관의 초전법륜상을 모티브로 조성됐다.


서울 강남에서 초기불교 수행도량으로 이름을 알렸던 제따와나 선원이 춘천으로 이전한다. 사진은 '춘천시대'를 여는 새로운 제따와나 선원 도량 전경.

법당 등 인도 기원정사 재현 불사
파키스탄 벽돌 30만장 외벽 장엄
전통사찰 건물 배치 그대로 따라

중도 수행 · 안거 집중 수행 '중점'
"서울서 못한 수행과정 운영할 것"

법당 2층에 마련된 선원은 다른 입구로 출입해야 한다. 선원으로 올라가는 공간도 새롭다. 거칠게 마감한 벽면이 마치 동굴이나 토굴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대중 수행 공간인 2층 선원은 5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이곳에서 제따와나 선원은 서울에서 할 수 없었던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준비 중인 하안거 · 동안거 집중 수행이다. 안거철에 모여 승가와 재가가 오롯이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분기별 1회 중도 수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초심자, 기본, 고급, 심화과정 등 4단계로 나눠 이뤄지는 중도 수행은 바른 견해인 사성제와 청정한 계를 바탕으로 바른 삼매를 닦고, 이를 기반으로 바른 지혜를 계발해 바른 해탈을 실현하는 수행 방법이다.

일묵 스님은 "사성제는 불교 수행의 시작과 끝"이라며 "현재 불교는 이를 등안시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성제를 바탕으로 중도를 닦아 바른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선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따와나 선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와 매월 둘째 주 일요법회, 초기불교대학도 운영한다. 제따와나선원 홈페이지(www.jetavana.net), 유튜브, 팟빵, 팟티,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서 사성제와 팔정도 법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묵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춘천에 초기불교 수행도량이 건립해 잘 운영한다면 지역 불교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 수행으로 바른 불교를 알리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따와나 선원은 '춘천 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전 개원 법회를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춘천 도량서 봉행한다. 법회에는 원택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백련암 문도스님 등 50여 명의 스님들과 춘천 지역 관공서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할 예정이다.

불교로 본 '소확행'

대한불교진흥원, 10월 16일 화요열린강좌 개최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행복은 어떤 내용일까?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10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불교적 행복을 말하다'를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배연국 세계일보 논설실장은 그의 저서 〈소확행〉을 바탕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자신이 불자임을 밝힌 배연국 논설실장은 강의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소소한 삶의 아름다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돕는 지혜 등을 짚는다.

화요열린강좌는 회비가 무료인 대신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3천원 이내 보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시함에 모인 금액에 진흥원이 일부를 보태서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02)719-2606

김지원 기자

금강경독송회, 22년 보시행 눈길

아름다운동행에 총 1000만원 전달
"보살심으로 보살행 · 보살도 닦아"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웅)는 9월 6일 아름다운동행에 티베트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지정기탁했으며 같은 날 사단법인 좋은벗들의 탈북 동포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새터민 모자 가정에 500만원을 전달하는 김재웅 대표(사진 가운데).

이날 기부금은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된장, 참기름, 조청, 편강 등 전통음식을 생산,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금강경독송회의 기부활동이 눈길을 끄는 것은 매년 1000만원씩 22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 국내외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매일 금강경 7독과 염불 정진 및 마음살림살이 수행 덕목으로 삼고, 전국 사찰과 군법당 등에 금강경 50만권, 불서(마음 닦는법) 180만권을 법보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한국 알리기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우리 문화 역사 관련 8종의 책을 6개 언어로 제작하여 78만권의 책을 무료 배포하였고, 35종의 영상을 7개 언어로 제작, 1만2000회가 넘는 상영회를 열었다.

스웨덴의 노벨물리학상 심사위한인 요한슨 뵈리에 교수 등 세계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영상을 보고 한국의 역사의 깊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연습하는 심성교육을 위해 매년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기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숭조애인,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충효예 정신을 주제로 12년째 장학금을 주는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3300명의 미국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 미국 학생들의 수상작을 다시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읽혀 우리 청소년들에게 밝은 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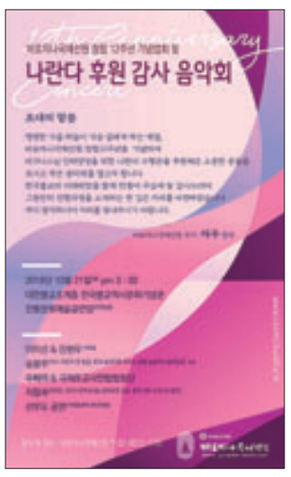
김재웅 금강경독송회 대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바로 죄 지은 것, 마음 닦는 것, 그리고 선행하고 공덕 지은 것"이라며 "모든 불자들이 늘 남을 돕고 배려하며 베푸는 실행을 통해 보살심을 연습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보살도를 닦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비로자나국제선원 창립 12주년 음악회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서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이 창립 12주년을 기념하고 나란다수행관 후원에 감사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비로자나국제선원 창립12주년 기념법회 및 나란다 후원감사음악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주 씨가 찬불가 '바라밀'이 최초 발표한다. 또 선무도서대문센터 유단자들의 선무도 시연, 국악인 지향희의 공연, 우빼까&국제포교사회 연합합창단의 환희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06년 10월 29일 도심포교와 국제포교의 원력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내외국인을 위한 영어 참선법회 및 어린이 청소년 영어담마스쿨, 성인 영어담마스쿨 등 다양한 영어 불교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17년 7월 현재 홍제동으로 이전, 중창불사를 진행해 1층 갤러리카페 등 문화 공간을 확충, 도심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나란다수행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번 음악회는 나란다수행관 불사에 도움을 준 이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자우 스님은 "학인 스님들 중 월세와 생활비, 학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을 마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포교를 하고자 원력을 내어도 거처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나란다 수행관 유지 및 운영 등을 위한 '나란다 후원회'를 조직해 정기 및 단기 후원을 받을 예정이다. 더 힘찬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